아가서가 전하는 ‘믿음’

(아가서 1:1~4)

1. 솔로몬의 아가라
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가서가 전하는 ‘믿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가서가 전하는 ‘믿음’

아가(雅歌)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노래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우매함과 허무함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에 허무하고 우매한 삶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미친 마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반대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근거로 선택하고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교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비롯해서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니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차선책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에 생겨나는 마음의 반응을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두 연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비유적으로 느껴보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에 인간이 반응하는 마음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포괄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안 좋아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뵈었을 때에 그 매력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마음에서 좋다고 믿어서 추구했던 모든 일들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나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갖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 매력에 끌려서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사랑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뵈었을 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뵙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좋아하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뵈었을 때에 세상에서 꿈꾸던 모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동료도 잊고 이 순간이 지속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재물을 선택하거나 건강과 장수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감추시고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자녀에게조차 마음이 빠져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직접 뵙지 못한 하나님을 백 살에 얻은 독자 이삭보다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이기실 만큼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좋아해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죽어라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끌려 다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마음이 끌려가는 체질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심을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의 도움

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을 뵙지 않고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가치도 깡그리 잊어버리게 할 만큼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뵙지 않고도 좋아할 수 있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가(雅歌)서는 '노래들 중의 노래(Song of Song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다고 여겨지는 찬송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또한 여기에 복음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는 후궁이 천 명에 달했습니다만, 통치 초기는 아직 왕후가 60명이고 비빈이 80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외교적 전략을 통해서 정략결혼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정략결혼은 외교적이고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략결혼이 반복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수넴 혹은 술람미로 불리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포도원에서 일하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정략결혼을 통해 140명의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여인도 솔로몬을 왕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써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을 대할 때의 마음이 상상이 가는데 바로 아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선민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시는 마음이 또한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대로라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질 때에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가서가 보여줍니다. 또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할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반영합니다. 비유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꼭 일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갖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되도록 조절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한 구절씩 해석하며 의미를 밝히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의 번제의 목적은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도록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더라도 주요한 내용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감이 이상합니다. 솔로몬을 향해 술람미 여인이 부른 이 노래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아가서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와 함께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서로 교창형식으로 나타나는데, 2절부터 사랑의 노래 내용이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아가서 전체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에서는 결혼 전에 연모하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중간 부분에서는 결혼 장면이 묘사됩니다. 후반에는 결혼 후에 갈등을 하다가 극복하여 더욱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였고 4절에서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인이라면 솔로몬에게 사랑을 느끼고, 인간인 한 하나님께 사랑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향유가 바닥에 쏟아지면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향기가 다른 사람 콧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가둘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매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쏟아진 향기름 같아서 그 매력에 반하지 않을 여자가 없음으로 모든 처녀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에 대해 2절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여인들의 경외를 받는 솔로몬이 그들을 젖혀두고 술람미 여인에게로 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졸도할 정도로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일등을 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만약 가수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열광하는 여학생 손을 잡아주고 그 손에 뽀뽀라도 하면 이 여학생은 아마도 한 달 동안 그 손을 씻지 않을 것입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여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나를 입맞춤하므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제일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돈을 좋아했고,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

겼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회되고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대상은 너 한 사람만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 한 사람만의 사건으로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그 중 천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예를 들었지만 달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씨네 논, 김씨네 논, 최씨네 논 등의 수많은 논에 다 달이 뜹니다. 1/10, 1/100, 1/n이 아니라 온전한 달이 뜹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만 좋아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셔서 내게 입 맞추시는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말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쁨거리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돈도 기쁘고 건강도 기쁘고 자녀의 형통도 기쁘고 성공도 기쁩니다. 이 세상 해 아래에서 기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이 내게 와서 입 한 번 맞추어 주시는 것보다 더 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보고 술람미 여인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뵈면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모든 기쁨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맞춤 한 번 해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직접 뵙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매력은 어떤 것입니까?
향기름이 쏟아지면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이 향기를 막을 수가 없기에 모든 사람이 다 맡게 됩니다. 뉴스에 악한 가정파괴범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인간도 하나님을 한 번 뵈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한 번 뵈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나 시진핑 혹은 아베도 하나님을 한 번 뵈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진동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는'이라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왕인데 시골처녀가 '너는 나를 인도하라'

고 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나를 당신의 침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과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는 말은 ‘나 잡아봐라’를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우리를 한 번 보고 돌아서서 막 뛰어가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예루살렘 모든 처녀들은 당신이 뛰어가면 다 따라 갈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보고 저리 가라고 할지라도 당신을 따라 갈 것입니다. 당신의 매력에 사로잡힌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뵈면 내가 언제 이런 것을 원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뵙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심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뵈면 걱정했던 것조차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가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 아래에서 소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 좋아하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모든 소원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깡그리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것들보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만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좋은 것들을 깡그리 잊게 만드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만을 뵙지 않고도 좋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좋아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